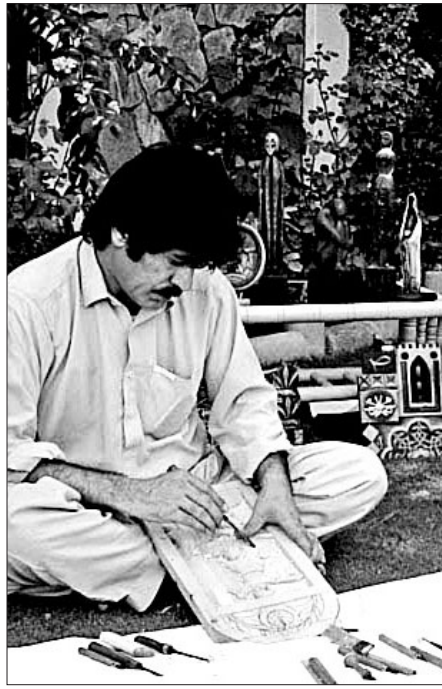


# 간다라 미술 전통 있는 목공예 사라질 위기

(Express Tribune)  
“스왓트 목공예 보존 시급” 보도

파키스탄 정부가 고대 우디아나 왕조의 전통 목공예술을 보존하고 있는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Express Tribune》지는 6월 24일(현지 시간)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은 고대 우디아나 왕조의 전통 목공예술과 그리스의 석공예술이 융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목공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 대부분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고대 목공예술의 맥은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나무새끼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스왓트 출신의 유명 작가 나사르 쉐인(Nasar Sheen · 사진 왼쪽). 그는 “간다라 미술의 전통을 잇고 있는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는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가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져 내려온 목공예술의 근원은 간다라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스왓트 출신의 유명 목공예가인 나사르 쉐인(Nasar Sheen) 작가는 “과거 목공예술은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또 일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구, 대문, 기둥, 액자 등을 수놓았던 예술”이라며 “파키스탄 정부가 목공예술의 맥을 잇는 장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공예가 가족의 생계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목공예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목공예가가 늘어나면서 전통 장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스왓트 지역 목공예는 초기 불교미술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로 생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에서 재현되고 있다. (사진 참조) 특히 꽃 모양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나열한 섬세한 스트로크 문양은 ‘초기 불교 미술의 전형

# 美 서러사, ‘음악·예술 축제’ 대중 눈길 잡아

북미 최대사찰로 개원 25주년 맞아 기념행사 열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찰로 알려진 서러사를 찾는 발길이 올 한 해 부쩍 늘어나고 있다.

《Topix》지는 “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이츠(Hacienda Heights)에 세워진 서러사가 개원 25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며 “6월 30일까지도 ‘음악과 예술 축제(Music and Art Festival)’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불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며, 사찰은 이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서러사 주지 후이 동(Hui Dong) 스님은 “최근 진행된 ‘음악과 예술 축제’ 역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Topix》지에 따르면 ‘음악과 예술 축제’에는 12개 이상의 밴드와 다양한 아티

스트 등이 참여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러사 25주년 기념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는 마리오 씨(Mario Cee) 조지워원은 “서러사의 이번 ‘음악과 예술 축제’에는 1990년대 이후 포스트 펑크 록, 인디 포크 팝, 집시 등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았다”고 전했다.

《Topix》지에 따르면 이번에도 실크로드 불상에 모티브를 둔 유희로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낸시 코워드인(Nancy Cowardin)의 작품도 전시, 판매됐고, 수채화가 조이 즈항(Joy Zhang), 팝아트스트 카렌 즈하오(Karen Zhao), 영화감독 에밀리 첸(Emily Chen), 판화가 크리스 리베라(Chris Rivera) 등도 이번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Topix》지는 “낸시 코워드인 작가는 이번 전시·판매 수익금 전부를 캘리포니아 암환자 후원 기금으로 내놓아, 서러사



북미에서 가장 큰 사찰인 서러사는 개원 25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이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5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고 덧붙였다.

서러사는 1988년 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에 대만 불광산사의 분원으로 출발했다. 당시 20여만 평 규모에 중국 전통 양식의 대웅보전, 박물관, 국제회의장

등이 건축되어, 캘리포니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서러사의 불사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 신도들의 보시금만으로 세워진 게 알려지면서 서구 사회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b>발로해(두한족열양말)</b>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b>자나깨나</b>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b>숨사라따</b>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b>호락호락 팬티</b>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b>보디스킨</b>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http://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중당사찰 가능

35년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원 규모보다 불심 키우는데 주력해야”

허핑턴포스트, 물질 성장에 관심 두는 태국불교에 경고

‘태국 불교계가 물질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듯하다. 《Huffington Post》지는 태국 방콕의 랜드마크 사원인 담마카야(Dharmakaya)를 오랫동안 연구한 레이첼 스콧(Rachelle Scott) 박사의 말을 인용, “태국불교계는 사원의 규모에 상응한 불심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태국 방콕의 랜드마크 사원인 담마카야(Dharmakaya)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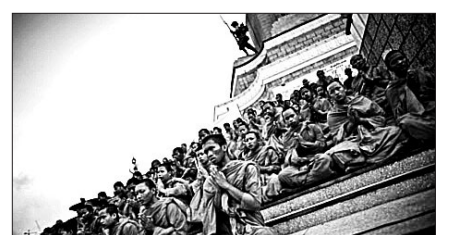
레이첼 스콧 박사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종교와 윤리(Religion & Ethic)》의 최근 기고문에서 “태국불교는 지금 물질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이는 자칫 태국불교를 연구하는 서양 학자에게 ‘영적 굶주림에 떨고 있는 대중’과 ‘자본주의 성전에 억류된 불교’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원은 바로 ‘방콕의 랜드마크인 담마카야 사원으로, 현재 1만여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사원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한 《Huffington Post》지는 “이는 태국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서양 불자가 태국 불교의 외형적 성장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태국 내에서도 태국불교에 쏠리는 ‘호불호’의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태국 NOB, 배불 승려 고발 ‘하라인’ 개설

“일반 대중과 승려 도박, 과소비 등 막을 것”

태국불교계가 자성의 깃발을 세웠다. 《The Guardian》지는 “태국불교계 스스로 승려의 이탈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선인 ‘하라인’을 개설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태국불교계가 “24시간 하라인”을 개설한 배경에는, 도박이나 약물 등에 빠져든 승려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불교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태국 국립불교사무소는 승려의 이탈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선인 ‘하라인’을 개설했다.

이번 하라인 개설을 주도한 국립불교사무소(National Office of Buddhism, 이하 ‘NOB’) 측은 “태국 인구의 95%가 불교에 의지하고 있다는 데 승가는 주목해야 한다”며 “하라인 개설이 승가 내 반대 여론으로 어려운 과정을 밟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대중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한 《The Guardian》지는 “지금까지 태국의 일부 스님들의 재산 축적, 약물 복용, 도박 중독, 과소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우려와 비판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하라인을 개설한 NOB이 대중들의 우려와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내에는 NOB 추산 24만여 명의



티베트 전통 축제 ‘웨이 상 페스티벌’ 중국 쓰촨성 아바장족자치주 흥위안에서 6월 18일(현지시간) 티베트 전통 축제인 ‘웨이 상 페스티벌(wei sang festival)’이 열렸다. 티베트인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공중에 ‘롱다(longda)’를 뿌리고 있다. ‘롱다’는 기도 문구가 적힌 종이 조각을 뜻한다. 매년 5월 혹은 6월 열리는 이 축제 때 티베트인들은 사이프러스 나뭇가지를 태우고 더 나은 삶과 풍년,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문을 뿌린다. 이나은 기자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